

인사말씀

종정예하의 정진력과 덕화 아래,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원력을 더해주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화의 중심이자 호국불교의 의미를 오늘날 되살리기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4대 집행부는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서원하고, 힘을 모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문화의 시대적 조화로움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교계, 정관계, 학계 등을 망라한 뜻 깊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오늘 역사적인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사는 경복궁, 인사동, 북촌 등을 연계하는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계사를 찾는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의 기대를 대하자면, 이내 부끄러운 현실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에 더하여 민족과 함께하고 나라를 지켜내고자 거룩한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온 선조들에게도,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구실을 대어도 부족하여 송구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명백합니다. 옛말에 토적성산(土積成山)이라고 했습니다. 흙이 쌓여 큰 산을 이뤄내듯이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을 비롯하여 종도들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우리에게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만들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혜택은 선대의 공덕 위에 있습니다. 고맙게 물려받은 것을 보존

하고 전승하는 것이야 말로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놓쳐선 안될 값진 책무이고, 선대는 물론 불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후손이 디디고 설 공덕의 터를 넓히는 것이 진정한 승계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터전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숭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곳을 미래의 터전으로 삼아 선대가 그래왔듯이, 시민과 함께하고 나라와 함께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선대의 지혜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1700년의 수승함을 담아내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내겠습니다.

오랫동안의 염원이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리고 모두를 배려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원력으로써 앞날의 지혜로움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 승